



상하이엑스포 한국관 인기 폭발 중국 상하이엑스포에서 2일 한국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몰려든 관람객들. 상하이엑스포의 한국관이 개막 첫날인 1일부터 관람객들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협뉴스

李대통령 건군 이래 최초 내일 靑軍 지휘관회의 주재

靑안함 사건 입장 밝히고 안보태세 점검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이래 최초로靑軍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다. 박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4일靑軍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 최고 지휘관들에게靑안함 사건이 우리 군과 국민에게 던져준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군 통수권 자로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靑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 안보태세를 점검하고靑안함 사건 후속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5면> 국가 원수가 육·해·공군 중장급이

상이 전원 참석하는靑軍 주요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건군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靑안함 사건이 우리 군과 국민에게 시사하는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짚으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 태세와 관련해 우리 군과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문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 단계에서 특정 지휘관 또는 부대를 문책하지 않

을 방침이며, 군의 문제점이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계획이라는靑 청와대의 설명이다.靑軍 주요 지휘관 회의의 참석자는 통상 회의 때와 같은 150명 정도로, 민간자문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초靑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하는 검토해왔으나 사건 원인이 확실해 밝혀진 뒤 담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靑軍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선거 민주당 靑 反민주 구도

D-30일 본격 레이스 돌입...무소속·군소야당 연대 논의 활발

靑경선 후유증 민주, 민심이반 대책 부심

'민주 대 반(反) 민주' 구도가 가시화되는 등 민주당의 뒷발인 광주·전남에 대한 무소속·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부실 공천에 따른 민심이반이 공략지점이다. <관련 기사 3·4·5면>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광주·전남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들도 본격적인 얼굴·공약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나, 조직·자금 부족, 여론의 무관심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3일, 광주·전남의 풍경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정당은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데다 후보 등록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 공천 마무리를 서두르는 한편, 후보자 출정식을 갖는 등 대대적인 세풀이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30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전남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광주시당은 일부 단체장 후보들의 전략공천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선거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광주 서구청장과 무안군수 후보 등의 공천을 이룬 시일 안에

끝내고, '뒷발 열기'를 피할려 수도권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11일 공천장 수여식과 함께 당선자 대화를 갖고 세 불리기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진보신당은 오는 15일 선거대책본부 체제로 전환, 표발 같이 본격화한다.

국민참여당은 오는 7일 정찬용靑청와대 인사수석,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로 참여하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년(23일)을 맞아 2002년 '노동'의 진원지였던 광주에서 바람표를 한다는 전략이다.

靑화민주당 또한 광주·전남에서의 후보 공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호남에서 유일한 'DJ정신 계승' 정당임을 호소할 방침이다.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광주·전

남 자치단체장과 무소속 자치단체장 7명은 3일 광주 YMCA 무진관에 모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를 위한 모임을 갖고 연대방안을 구체화한다. 여기에는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이성용 광양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황주홍 강진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청 장성군수 ▲신정훈 전 나주시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와 순천 등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이 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반민주 연대로 민주당을 견제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정책 발표회 등을 갖는 등 전면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혁신적인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30주년 행사 6일부터 시작

광주·전남·서울 등 전국서 40여개 행사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5·18 민주화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2일 "6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들리는가! 오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햇볕'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신계승, 문화·예술, 학술·교육, 국제·타지역연대 등 10개 분야 40여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6면> 6일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일대에 만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에는 '6·15 5·18 비로알기', '2010 민주대성회', '오월 여성제' 행사가 열린다. 14~23일에는 광주극장에서 우리 겨레 하나 되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6·15 10주년 기념 비록영화 상영회'가 개최된다.

5·18 민주화쟁 30주년 기념행사 일정

행사일시	행사명	장소	주관단체
5.6~23	5·18 만장전	국립5·18민주묘지	행사위원회
5.14~23	6·15 10월 기념 비록영화 상영회	광주극장	행사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5.15	2세와 5·18 비로알기, 5·18 역사기행	광주공원	5·18민주화운동부상지회
5.17	오월 대학생 한마당	추후 확정 예정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5.15	2010 민주대성회	금남로	행사위원회
5.16	사·도민 대화 한마당	금남로	광주전남진보연대
5.17	전야제	금남로	행사위원회
5.18	5·18민주화쟁 30주년 기념식후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5·18구속부상지회
5.21	오월 창작 기요제 '향'	금남로	오월창작기요제조직위원회
5.1~18	5·18민주화쟁 30주년 기념 부산행사	부산민주공원·강월동	부산행사위원회
5.13~17	5·18민주화쟁 30주년 기념 대전총칭행사	대전시청	대전총칭행사위원회

17일에는 '추모제'와 '전야제', '오월 대학생 한마당'이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돼 30주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21일에는 5월의 노래를 통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월 창작 기요제'가 열린다.

18일에는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희생 영령 추모제'가 개최되며, 서울·부산·대전 등지에서 1일~18일까지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다양한 기

념행사가 펼쳐진다. 이 밖에도 '부활제'(27일)와 '오월 정신계승 사·도민 경기대회'(30일), '아름다운 가가와 함께하는 나눔행사'(30일) 등이 계속 된다.

행사위 관계자는 "올해 기념행사는 5·18 민주화쟁의 가치 재정립과 5월 정신 계승에 초점을 둔 시민중도형 추모 행사로 치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5월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대회

신청기간 : 2010.5. 6(화) ~ 5.13(화)

발표대회 : 2010.5.24(월)

종료일자 : 2010.5.27(목), 28(금)

주최 : 광주광역시 - 광주시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시교육청

주최 후원 : 한국문화재단,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문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실 (062-605-1114)